

남아공 오페라 '포기와 베스' 9월 첫 광주 무대



조지 거슈윈 탄생 120주년·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 기념

문화전당 9월 7·8일 예술극장...아프리카 최대 오페라단 CTO 공연

작곡가 조지 거슈윈 탄생 120주년과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초정작 '포기와 베스' 오페라가 국내 최초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른다.

오페라 '포기와 베스'가 9월 7일(오후 7시 30분), 8일(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공연된다. '포기와 베스'는 연극과 뮤지컬로는 공연되기는 했지만 원작인 오페라 버전으로는 국내 초연이다. 아시아 최초 투어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오페라단(Cape Town Opera, 이하 CTO)의 '포기와 베스'는 1935년 뉴욕 브로드웨이 알빈 극장에서의 초연 이래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왔다. 작곡가 조지 거슈윈

이 작곡한 최초의 오페라 작품이자 대표작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인 재즈와 클래식적 성격적인 결합을 이룬 작품으로 꼽힌다. 특히 삽입곡 '썸머타임(Summertime)'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옥같은 명곡이다.

뒤보스 헤이워드의 소설 '포기'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1930년대 찰스턴 시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미국인들의 삶을 다룬다. 얇은뱅이 거지 '포기'와 아름다운 여인 '베스'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와 그들을 둘러싼 흑인 빈민가의 위태로운 삶의 모습이 어우러져 암담한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밝은 빛처럼 솟아나는 인간의 강한 의지를 그려낸다.

'포기와 베스'는 흑인 특유의 리드미컬한 스타일과 오페라의 음악적이며 극적인 양식

의 조화를 보여준다. 특히 거슈윈이 흑인 캐스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듯이 이번 오페라에서는 흑인 성악가의 특유한 보컬기법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CTO 제작의 '포기와 베스'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CTO는 아프리카 최대의 오페라단으로 '만델라 3부작', '흑인 소년병' 등의 창작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남아공 가장 큰 규모의 공연예술단체다. 케말 칸이 지휘하며 코리아 콰르테트 라가 협연한다.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한 가난, 인종차별, 계급 갈등은 2018년에도 여전히 아프리카와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다. 주옥같은 아프리카 '베스, 이제 당신은 내 여자야(Bess, you is my woman now)', '아무것도 없네(Oh, I got plenty o' nuttin)' 등 아름다운 선율이 그려내는 노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오페라단(CTO)의 '포기와 베스'.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에냥** 9월호

비엔날레 향연 속으로

광주비엔날레·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특집 '초대석'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9월 들어 광주와 전남에서 비엔날레의 향연(饗宴)이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9월 7~11월 11일)와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9월 1~10월 31일)다. 광주 일보에서 펴내는 문화 예술 매거진 월간 '에냥'은 두 비엔날레를 특집으로 다뤘다.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와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한다. 또한 1995년 창설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 탄생한 지역 스타작가와 정상급 기획자들을 찾아보고, 부산 비엔날레와 창원 조각 비엔날레 등 가을에 열리는 타 지역 미술축제를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 코너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을 50년 가까이 연구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만났다. 18년간의 강진 유배에서 풀려나고 '목민심서'를 저술한지 꼭 200년이 된 해를 맞아 박 이사장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현대의 '목민관'들에게 '공렴(公廉·공정함과 청렴함)'을 강조한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맞아 마련된 '신(新)남도 택리지 시리즈'는 여수를 찾았다. 여수는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스카이 투어 등 온갖 레저체험을 할 수 있으며 밤바다와 버스킹(거리공연) 등 다채로운 낭만적 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다. 봉화산 산림욕장과 소호 동동다리 같은 힐링 관광지와 하모(갯장어) 사브사브 등 별미를 소개한다.

또한 서양화가 한희원의 문화 기행을 두 차례에 걸쳐 실는다. 작가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러시아 남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지난 여름에 다녀왔다. '그림으로 만나는 화가 한희원의 조지아-아르메니아 여행'은 작가가 두 나라에서 보고, 느낀 풍경과 느낌을 특유의 그림과 함께 감성적인 문체로 펼쳐 보여준다.

새로 마련한 '해외 문화현장' 시리즈는 첫번째 순서로 석탄 대신 예술을 깨내는 독일 '예술 쥘페라인' 복합 문화단지'를 찾았다. 석탄산업의 쇠퇴로 몰락한 탄광촌에서 예술과 디자인, 문화, 레저가 어우러져 세계적인 복합 문화단지로 새롭게 태어난 쥘페라인을 통해 한국 도시재생 정책의 지향점을 모색해 본다.

이 밖에도 KIA 타이거즈의 믿음직한 중고신인 황인준 투수의 야구 이야기를 비롯해 추석기 작가 '고부(姑婦)'가 행복한 명절 보내려면'과 애서가들이 한눈썹 가보고 싶어하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도미니칸 서점', 순천 김승욱·정채봉 문학관 기행, 배국남 대중문화 X파일(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바꾼 스타 판도) 등 다채로운 읽을 거리를 마련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산단비엔날레-소촌도큐멘타 '안전진단' 9월 첫 광주 무대



최요한 작 '분노하리'

공단 지역에 자리잡은 문화 공간에서 흥겨운 페스티벌이 열린다.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현장 창작활동 페스티벌이다.

'2018산단 비엔날레-소촌도큐멘타 안전진단'(예술감독 정위상무)이 광주 광산구 소촌공단 소촌아트팩토리에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린다.

이번 비엔날레는 천재용, 홍원석, 김재성, 신도원, 박용화, 정문성, 최요한, 문재선 작가가 참여하는 주제전시와 전국 문화 예술인 100명이 함께하는 주제행사 '드로잉 파티'로 구성된다.

또 '창작을 위한 안전한 음식문화'를 주제로 음식문화디자이너 '담양댁 박지현'의 미

식드로잉이 함께 열린다.

연계행사로 '안전진단'을 주제로 열리는 전문가 포럼, 소촌레지던스 입주예술가(이두환, 박화숙, 박정일, 김계진)의 공공미술 벽화, 게스트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유창작 개념의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된다.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 주방소품, 아시아 소수민족 의류, 가방소품,카페트, 소장 만화책, 자수용품 등을 판매하는 아트마켓과 안전한 음식문화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현장 미술 페스티벌 '드로잉파티-안전진단'은 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동안 열린다. 참여작가는 안전한

창작환경을 주제로 특정한 형식이나 격식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현장 창작활동을 하며 공연행사로 무용가 이반야, 펑크팝 듀오 윈디켓, 미디어 아티스트 정문성과 임순중의 미디어아트 퍼포먼스와 테크노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학술프로그램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한 안전진단 포럼'은 8일 오후 1시 열린다. 김준기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김희량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장 등 문화예술 전문가 8명이 참가한다.

문의 062-960-3685. blog.naver.com/artparty_sochon.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풍수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 모집

이 시대 최고의 풍수사 인산 윤갑원 선생님의 실전 비법 강의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8. 8. 14~
모집대상 |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
자격종류 | 통택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양택풍수사(단일급), 주거환경개선사(단일급)
강의내용 | 음택풍수 강의 : 묘터 보는 비법 (윤갑원 교수)
 양택풍수 강의 : 집터 보는 법, 이사집 정하기 등 (정태일 교수)
강의방법 | 이론강의 : 매주 월요일 19:00~21:00 본학회
 현장실습 : 매주 토요일 음·양택 현장실습
공개강좌 | 2018. 9. 3 본 학회 강의실
학회위치 | 광주 북구 서방로 37, 2층(중흥동 270-15)
연락처 | 062)511-2488, 010-3640-8277(김용국 학회장)

※본학회는 광주전남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한 풍수사자격증 발행기관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